

포도나무 한 그루

| 칠레 |

와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나라가 긴 만큼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칠레 북부에 Alto Hospicio라는 사막이 있는 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칠레 인구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중부지역 수도 산티아고에 살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북부의 사막 도시 또한 광산이나 일자리를 찾아 많은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칠레 와인이 유명한 이유는 와인을 만들기에 좋은 날씨와 좋은 품종의 다양한 포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와 훌륭한 품종의 포도처럼 칠레 교회 또한 그들의 삶과 전통 안에 모범적인 가톨릭 문화와 신앙의 유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을 대표하는 성 인상이 마을 곳곳에 있고, 그 앞을 지나가거나 성당 앞을 지나갈 때면 꼭 성호경을 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은 칠레의 다양한 포도만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중 페루, 볼리비아와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이웃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축제 때가 되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전통 복장과 춤을 추며 자신들의 전통과 가톨릭 신앙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가톨릭 문화와 전통을 접하고 신앙을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레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장하며 이어집니다.

아울러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려 노력합니다. 포도 열매는 나무를 떠나 열릴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고 기도할 때의

기쁨과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 않았을 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교회 안에서 친교를 이루고 미사를 드리며 기쁨을 나눕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성직자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한 포도에 먼지가 쌓여 햇빛을 받지 못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듯, 사제가 부족해 성사 생활을 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부 성사를 청하고 싶어도 주변에 사제가 없어 성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넓고 마을이 많다 보니 일 년에 한두 번 미사를 드리는 시골 공소들도 있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이곳 공동체 나뭇의 기쁨과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늘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 동안, 다르지만 한편으로 닮은 칠레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머무르려 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순간에 충실히 함께 살아간다면, 훗날 포도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칠레 교회 안에서 기쁨을 나누며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성훈 프란치스코 신부 | 칠레 선교